

부루노, 바우흐(一)

現代 世界 唯一民族 哲學者

安浩相

- 一, 그의 略歷과 著書
- 二, 그의 哲學의 方向
- 三, 그의 論理 認識觀
- 四, 그의 人生觀
- 一, 그의 略歷과 著書

부루노[브루노], 바우흐(Bruna Bauch)는 一八七七年 一月十九日에 東普魯西 한곳 한農村에서 農家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小學과 中學을 마치고 南 獨逸의 山水조코 歲史기픈 하이델베르크와 푸라이부르크大學에서 哲學을 공부 하였다. 마침 그 때에 이 두 大學에서 兩大 新칸트學派의 그 하나인 西南學派가 出現했스며, 또 興盛할적이다. 바우흐는 西南學派의 큰 權威者들인 빈델반드와 린켈트미테서 哲學을 研究하였다. 그는 哲學뿐마아니라 受學과 物理學과 動物學을 다 가튼 趣味를 갖고 研究하였다. 심지어 그는 哲學을 혹은 動物學을 그 어느 것을 自己의 專攻科目을 삼을지 몰랐었다. 그러다가 卒業할 當年에사 비로소 哲學을 專攻科目을 삼아서 그 大學을 卒業하였다. 그 大學에서 다시 倫理學 問題로서 博士學位를 얻게 되었다. 그러한 뒤에 속 中 普魯西할테 大學에서 哲學科 助教授로 잇다가 一九一一年부터 예나大學 教授로 잇다.

그는 一九二六年에 米國뉴욕에서 또 一九三十年에 英國 런던에서 열린 世界哲學大會에 獨逸哲學代表로서 出席하였었다. 一九二八年에 西普魯西 큰쎌大學에서 그를 다려 갈여고 만흔 애와 別離手段을 다썼다. 그러나 그는 썩썩 내 그 要求를 듯지 안혔다. 그가 예나大學를 기피 기피히 사랑하며, 尊敬함은 예나大學은 歷史만 오래될 쎌아니라, 또 獨逸哲學의 故鄉이오. 獨逸 哲學者들의 큰집(宗家)인 쎌문이다. 그러므로 이 「哲學의 都市」(Stadt der philosophie)인 예나大學에서 哲學의 教授가 됨을 自己의 最大의 責任이오. 最

高의 영郭인줄밧는다.

바우흐의 著書들을 다들 머길수가 업고, 그 中에서 第一 重要한것 밧개만 들고저 한다.

近代 哲學史

임마누엘칸트

實體問題

참과 價値와 現實

Clie Idea

批判 倫理學에서 幸福說과 人格說

教育學의 哲學的 基礎

文化産物의 教育的 意味

民族의 概念

文化의 民族

二, 그의 哲學의 方向

바우흐는 獨逸 現代 哲學界에서 큰 權威를 가진 한 사람이다. 特別히 그의 論理 認識論은 오늘날 獨逸의 哲學界에 만흔 特色과 큰 色彩를 보이고 있다. 그는 獨逸의 傳統哲學의 繼承者인 同時에 쏘 그의 哲學은 獨逸哲學의 正統 哲學이다. 라입니츠[라이프니츠], 칸트, 피히테, 헤겔, 로체, 이들의 根本 思想우에서 自己의 哲學體系를 세웁다. 그 中에서도 그는 칸트 研究가 만다. 그럼으로 獨逸의 現代 哲學史書類에서든지 쏘는 哲人辭書를 본다면 바우흐를 新칸트派하고 썩지 하얏다. 그러나 그를 칸트派라 함은 울키도 하고, 울치 안키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그 넓은 意味에선 그를 칸트派라고 할 수 잇스나, 그 좁은 意味에선 그를 單純히 칸트派하고만 할 수 업다. 그의 哲學的 思索은 칸트 답을(칸트의일)썩 만아니라, 쏘 헤겔 답(헤겔의이)다. 近年에 나온 그의 著書들(文化와 民族, 文化産物의 教育的 意味)을 읽어볼 적에는 바우흐는 칸트 답음 보담 너머 헤겔답게 보인다. 그럼으로 그를 칸트派라고 할진대는 만드시 헤겔派라고 해야될 것이며, 쏘 그를 헤겔派가 아니라고 主張한다면 썩라 칸트派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넓은 意味에선 그는 칸트派도 헤겔派도 다 되지만 좁은 意味에선 이 派도 저 派도 아무 派도 아니고, 오즉 自己派(自己派) 제대로 라고 바우흐는 스스로 말하얏다.(自傳三四-三六頁)